

천주교 콜럼버스 교구 한인성당

본당주소: Holy Family Church 584 W. Broad St. Columbus, OH 43215
 홈페이지: <http://www.kcolumbus.org>
 주임신부: 김충귀 베드로 신부 (badackk@yahoo.co.kr, 614-961-0980)
 총회장: 이봉모 바오로 (614-766-1990) 부회장: 최영자 레지나 (614-855-2167)



천주교 콜럼버스 교구 한인성당

The Korean Catholic Church of the Diocese of Columbus

연중 제21주일 August 24, 2008

본당 소식

◆ 예비자 교리 일정 안내

- 9월 20일(토) 오후 3시
- 장소: 사제관 (3537 Chowning Ct, Columbus)
- * 9월 21일 주일 미사 중 예비신자 환영식이 있습니다.

- ◆ 지금까지 봉사해 주신 사목회장님 이하 모든 사목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본당 스태프 위원들은 9월 중 임명되며 추후 주보에 공지하겠습니다.

- ◆ **성가단원**을 모집합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성가단장 박영주 마리아 자매님 (315-8598)에게 연락바랍니다.

◆ 빈첸시오회 무료급식 봉사

- 매월 둘째 수요일마다 우리 공동체 빈첸시오회에서 홀리스 무료급식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당 교우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 일시: 매월 둘째 수요일 12시-1시
- 장소: Faith Mission Shelter
599 E 8th Ave
Columbus, OH

◆ 친교 준비 봉사자

- 8월 24일: 김태훈
- 8월 31일: 서경환

◆ 8월 친교 후 정리 봉사: 김효임 구역

- ◆ 둘째 주일 미사 후 **유아세례**가 있습니다. 신청하실 부모님께서서는 최규선 루치아노 형제님(614-302-3708)에게 문의하십시오.

- ◆ 매월 셋째 주일 미사 후 **병자 봉성체**가 있습니다.

◆ 2008년 BAA (Bishop's Annual Appeal)

모금에 많은 교우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BAA 모금은 콜럼버스 교구의 모든 본당에서 이루어지며, 모금액은 주교님께서 정하시는 가톨릭 교육 사업, 성소 개발, 사정이 어려운 단체나 본당 지원 사업 등에 사용됩니다.
- 올해 우리 공동체의 목표금액은 \$6,427이며 지난 주까지 모금액은 \$4,020입니다.
- 참여하실 분은 재무위원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친교시간 이후 각자 앉았던 **자리를 깨끗이 정리**해 주시고,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을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주 일 헌 금	\$496.00
교 무 금	\$650.00
감 사 헌 금	\$100.00
BAA	\$400.00

- **교 무 금:** 김정일 서태수 최규선 김승재
- **감사헌금:** 김승재
- **BAA:** 김소연 김정현 권오경 홍그루 김승재



<베드로 사도의 회개>

교야 (1746 - 1826), 유화, 필립스 컬렉션, 워싱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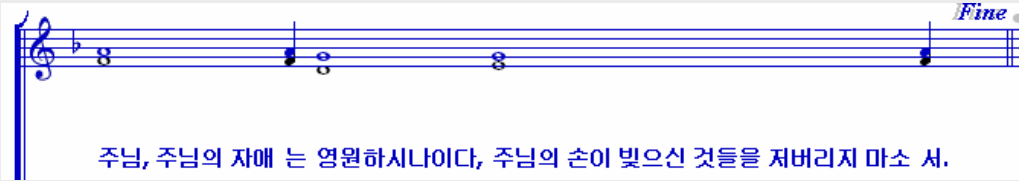
“너는 베드로이다. 나는 너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오늘의 전례

제 1 독서 이사야서 22,19-23

“나는 다윗 집안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메어 주리라.”

화답송



제 2 독서 로마서 11,33-36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와,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저승의 세력도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 알렐루야

복음 마태오 16,13-20

“너는 베드로이다. 나는 너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공동체를 위한 묵주기도 50만단 바치기 운동

- 지향1) 공동체 자체 건물 마련을 위한 지향
- 지향2) 공동체안에서 고통중인 신자를 위한 지향
- 지향3) 공동체안에서 성소자 계발을 위한 지향

구역	지난 주일	합계
김제준	단 명	2,065단 17명
이호영	단 명	8,708단 75명
정하상	단 명	3,485단 77명
황석두	단 명	6,645단 70명
김효임	단 명	1,171단 29명
학생 구역	단 명	10단 2명
미사중	단 명	12,109단 10,315명
	단 명	2/22/04 - 8/17/08 (235주)

☞ 총누계: 198,428단 12,682명
묵주기도 목표단수는 매주 5천단입니다.



봉사자 안내

	8월 24일	8월 31일
전례준비	박시영	김준승
해설자	김오경	신현태
독서/봉헌	이호영 구역	김한식 김순자 황석두 구역
보편지향 기도	십자가의 모후	평화의 모후

오늘의 성가

♫ 입당: 18 ♫ 봉헌: 217
♫ 성체: 151 165 ♫ 파견: 61

생명의 말씀

하늘나라의 열쇠

박문식 베네딕토 신부 / 곤벤뚜알 프란치스코회 관구장

믿을 수 없는 사람을 신용하여 일을 맡기는 어리석음을 보고, 도둑놈에게 열쇠 맡긴 셈이라 한다. 믿음이 가는 사람에게 열쇠를 주기 마련이다. 사도 베드로가 받은 열쇠는 그에 대한 주님의 믿음과 사랑의 선물이다.

언제부터인가 열쇠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 문단속이나 귀중품을 잘 보관하기 위해 모양도 갖가지, 크고 작고, 글자 맞추기도 있다. 하지만 집 대문, 방, 사무실, 금고, 자동차 열쇠보다 하늘나라의 열쇠를 꼭 갖고 있어야겠다.

“스승님은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마태 16,15).

“시몬 바르요냐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 주셨기 때문이다... 너는 베드로이다”(마태 16,17-18).

‘살과 피’는 자연인간이라는 뜻으로 자연 인간은 하느님의 아들 메시아를 고백할 수 없고 오직 하느님의 계시가 내려야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몬에게 주신 별명은 아람어로 케파(돌, 바위), 그리스어로 페트로스(돌)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을 메시아로 알아보고 고백한 시몬 베드로를 반석으로 하여, 그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매고 푸는 권능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다.

하느님 나라의 열쇠를 물려받은 베드로 사도가 하늘나라를 사람들에게 열어 주고 그 곳에 들어가게 하는 비결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명하는 것을 다 지키도록 그들을 가르치는 길밖에 없다(마태 28,20 참조). 산상설교의 교훈들을 지키도록 가르쳐야 한다(5,20).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이들(7,24)은 ‘가장 작은 이들’ 안에 계신 주님이 굶주렸을 때, 목말랐을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고 병들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그분을 돌보아 드린다(25,31-40). 그래서 이들은 하느님 나라로 들어간다. 우리는 그들이 맺은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 수 있다(7,20).

우스갯소리 중에 천국문을 지키는 베드로가 성형수술을 너무 많이 한 한국 사람들 때문에 사람을 제대로 알아볼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느님은 속마음을 보신다(1 사무 16,7 참조).

복讖 형제들이 굶주리고 죽어간다. 우리는 그들 안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도와 주어야 한다. 민족화해와 일치를 위해서뿐 아니라 하느님 나라의 문을 열기 위해... 준비된 사람에게만 열려지는 그 문을 사랑의 열쇠로 열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길을 가야 한다. 길, 진리, 생명이신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어둠은 실재가 아니다. 단지 빛이 없는 상태일 뿐이다. 우리가 방 안의 커튼을 내린다면 아무리 해가 밝게 비추고 있다 하더라도 그 방은 어둠 속에 잠길 것이다. 이런 어둠을 쫓기 위해서는 햇빛을 더 밝게 하는 데 힘쓸 것이 아니라 - 우리는 그렇게 할 수도 없다 - 빛이 방 안에 잘 비취들게 해야 한다. 커튼을 올리고 창문을 열면 밝아진다.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시기에 우리도 마음의 문을 열고 베드로의 대답처럼 고백하자. “스승님은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